

Her Story

1999년 6월 편집인 : 이이송이 발행처:한국해양대학교 16대 총여학생회(051)410-4149 편집·인쇄:모던·콤(051)467-6474

창간호

역사는 남성만이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다. History를 거부하며 Her Story를 알린다.

글순서

1면 (표지)

• 99 메이데이를 다녀와서

2면 (경치)

• 호주의 폐지서명운동 호주제! 새롭게 조명한다.

3면 (공제)

• 마지막 비상구, 인천사원제

• 그 속에서 여성은 21세기 유망여성직종

4면 (서평)

• 토론회의 매체비평 자매에게 띄우는 글

5면 (현경)

• 양심수 석방을 위한 퍼포먼스

•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6면 (역성)

• 만나다. 지분들은 사람들 - 성도여성의 기후장 건설경

• 신금여성실업대책본부 가동!

7면 (문학)

• 독서산책 - 화농호수로 떠난 여행

• 성희롱을 말한다 - 제 3회 사육여성평화제

8면 (황여소석판)

• Herstory 창간호를 맞이하여



99메이데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안정 이루자!

여/성/의/힘/모/아/여/성/노/조/건/설

5월 1일은 노동운동에 있어 특별히 의미있는 날이다. 1886년 5월 1일 법정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재정할 것을 주장하며 숙련노동자, 미숙련 노동자, 여성과 남성, 흑인과 백인, 이민자와 본토박이. 그들은 함께 투쟁하였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오늘은 어떠한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아예 일자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니 지난 100여년동안 쌓아놓은 인권과 노동권이 하루 아침에 허물어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에 메이데이 행사를 통해 다음을 약속하였다. - 과거의 투쟁을 기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희망을 펼쳐보이자. 한 사람에 대한 권리 침해가 모든 이에 대한 권리침해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함께 할 것이다. 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안정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2. 우리는 아버지만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의 호주제 안에서는 남자인 아버지의 지위만을 강조하여 아버지의 성만을 이어받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불평등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총여에서는 '부모성 같이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부모님의 성중에서 7나니순으로하여 성을 만들어 쓰는 것이지요.

총여,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벌이다.



총 여학생에서는 이번 적도제 기간 중 13, 14일에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을 벌였다. 호주제란 집안의 주인을 남자를 우선으로 승계 하는 제도로서 할머니나 어머니의 호주가 어린 손자 또는 아들이 되는 것과 부부가 이혼했을 때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 동거인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제도이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이런 호주제도의 불합리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폐지시키기 위해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을 벌였다.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사람들에게 호주제 폐지에 관해 물어

보았는데 여성들은 모두가 "꼭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바뀌어져야 했을 제도이다." "담연히 바뀌어져야 한다." 어떤 여성들은 "솔직히 내 동생이 호주인 건 기분 나쁘다.(잘못된 것이다.) 내가 동생보다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은데...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다. 반대로 남성들 중 50%가 "가족권을 포기 할 수 없다." "불편함을 못 느낀다." "생각이 없다." "나는 서명 못해 이걸."라는 대답을 하였고 "반대하거나 그런 건 없다. 못할 건 없다." "통섭한다." "찬성한다."라는 대답이 50%였다.

13, 14일 동안 200여명의 분들이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에 참여 해 주었다. 이 서명들은 호주제 폐지 시민 모임에 보내져 다른 곳에서 서명한 것과 함께 헌법소원을 할 때 참고 자료로 쓰여진다.

아직까지 호주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웠고, 이번 적도제 기간에 총여학생회에서 벌인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은 호주제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꿔게 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국제대 03분반 99 박이 주연

【 호주제 다시 한번 조명한다. 】

오늘날 호주제는 일제식민하에서 일본민법상 호주제를 그대로 채용한 것

사 랍의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며, 호적법은 민법의 절차법이다. 그리고,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나 그 변동을 공증, 기록하는 공문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호적개념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호적은 일반인들의 의식에서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가(家)의 계보(系譜), 바꾸어 말하면 작은 족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호적은 자신의 혈통을 알 수 있는 작은 족보로서, 호적에 함께 등재하고 있는 사람이 한가족이며, 호적에서 떠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생각한다. 민법은 호주와 가족이라는 점에서 家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하고, 가의 장(長)은 호주이며, 호주는 그 가족을 봉양한다는 일제식민지시대에 이식한 일본 민법상 호주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호적법은 이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족원 전부를 호주를 기준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역시 일본호적제도를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구일본에서처럼(현재 일본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되었음) 호적제도와 호주제도를 서로 맞물리도록 운영한다. 그러므로, 호주제도의 폐지는 호적제도의 폐지를 뜻하고, 가의 폐지를 뜻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자신의 뿌리가 사라진다는 의식까지도 들게 한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호적의식은 민법재정당사부터 논란해 온 호주제도를 폐지하기 어렵게 한다.

새로운 호주제 호적제 창설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주춧돌

그 러나 호적은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문서이지, 개인의 혈통을 나타내는 족보가 아니다. 국가가 법적 분쟁이나 행정절차상 국민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문서에 불과하다. 국가는 자유로이 다른 형태로 신분증명제도를 둘 수 있다. 주민등록제도가 그 한 예이다. 따라서, 그 재정당사부터 논란되었던 대표적인 여성차별제도인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일은 물론이고, 호주제도를 정제로 부계혈통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관제하는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호적제도를 창설하는 것

이 우리나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호주제가 몇 차례의 가족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무지의 결과다. 남자의 씨를 이어야 한다는 '씨내리'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신과 이러한 공신으로 인해 벌어지는 여성차별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악법과 악습에 과감한 철폐를 가하지 못하는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것이다.

현재처럼 남편을 호주로 하고 신분행위(출생, 결혼, 이혼, 재혼, 입양, 사망 등)

때마다 입적, 재적, 복적을 반복하는 친족단위의 기록형식은 호주와 다른 가족의 관계에서 주종관계를 나타내므로 헌법에 어긋난다. 더욱이 부계혈통 친족집단인 '가(家)'를 기본적 단위로서 기록하므로 이혼한 여성, 혼인 외 자녀를 낳은 여성, 혼인 외 자녀, 재혼하는 여성과 그의 동거자녀 혹은 비혼(非婚)의 남녀 등을 명시하고 차별하거나, 경제여성을 '이동인간'으로 취급하는 등의 '호적감정'을 유발한다. 따라서 여성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의식을 얹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단위를 존중

하기 위해서도 '가(家)' 제도와 호주제도를 폐지한 호적제도를 만들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호주제는 현대에 적용할 수 없는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 남성중심의 생각으로 호주제의 폐지를 꺼리고 있다. 호주제는 가족을 묶어두는 수단이 아님을 주지하고 모두 호주제 폐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냉동공조공학 전공 97 오 성 주

【독서산책】

책 때문에 책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꽤 있다. 제목이 마음에 들면 책도 잘 읽혀지고 집중도 꽤 오래 할 수가 있다. 이 책을 고르고 서너 시간을 집중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를 쓴



작가 류시화의 글이라서 믿음을 갖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읽어 나갈 수 있었다. 그가 가는 세계라면 어디든 따라가서 함께 갈 수 있을 거이라는 그런 소중한 믿음으로 말이다. 인도라는 나라(?).....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어느 나라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인도인, 담장 넘어 죽어도 이상 승배의 대상인 소를 잡아먹지는 커녕, 자신의 똥까지 소한테 바치는 정신 세계에 빠져 있는 수행자의 나라..... 거기부터 고위 지배층까지 전부가 정신 수행자이며 인생을 달관한 철학자들로 가득한 그런 나라인 인도를 1년에 한번 꼴로 10년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다.

하늘 호수라는 것이 무엇 의미하는 것일까? 그가 것처럼 끊임없이 찾아 갈 수 있었던 인도라는 나라 바로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인도라는 나라! 배는 풍족하고 기쁨이 있지만 머리는 한없이 공허한 내가 가 봐야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지은이 : 류시화

작품 :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살아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 번역서 <성자가 된 청소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티벳 사자의 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등의 여러 명상서적이 책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은 지난 10년 동안 열 차례에 걸쳐 인도 등지를 여행하면서 체험한 영동하고, 기발하고, 감동적인 일화들을 모은 것이다. 장발을 한 고독한 여행자가 히말라야의 동물과 드넓은 평원에서 맞닥뜨린 따뜻한 사람의 삶과 큰 감동의 물림.....

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친구들이 2학년이 되니 많이 힘들어한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모두가 힘든 이때, 친구들과 이 책을 돌려 가며 읽어보았다. 이 책을 읽었던 나의 룸메이트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수 천년 전부터 전해진 일이다. 그래서 주어진 삶대로 그렇게 살기로 했다" 인도인의 정신 세계에 뿌리 박힌 이와 같은 사상은 힘든 자에게 힘을 주는 말도 되고 다음 세상에서는 업을 없애고 더 잘 살수 있으리라는 어떤 희망도 준다. 자그마한 돈의 가치에 인생에서 얻을 수 없는 더 귀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류시화는 행복했을 것이다. 바보처럼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그가 어라석게 보이지 않는 것도, 그를 어라석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 내가 더 어라석게 느껴지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현대병에 걸려 하루적대고 있는 나의 머리가 이 책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심장이 중요하다. 머리가 중요하다"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생각만 있고 그걸 느낄 수가 없고, 느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듯 했다. 요즘의 나는 가난한 자의 행복도 가진 자의 불행도 다 이해할 순 없지.

만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여유나 순간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깨달음이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 가슴 졸이고 아찔해 하며 마음을 다치는 그런 좁은 마음과, 내가 상대적으로 가진 자임에도 나보다 가지 못한 자에게 인정을 베풀지 못하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정작 그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아프게 하는 과욕을 부리는 것을 인도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낯선 타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런 자에게서 배운 것이 머릿속을 뭉뚱아 없어지지 않을 때는 그건 나에게 있어 커다란 설렘일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인도로 가는 여행길에, 아니 하늘 호수로 떠나는 여행길에, 마음을 열고 나를 찾으러 가는 여행길에, 장발을 한 히피족 아저씨를 만나게 되다며 하고픈 말이 생겼다.

"내가 당신을 책에서 만나고 이렇게 또 만나게 된 건 수 천년 전부터 전해진 일이지 너무 기쁘게 마세요"라고 말이다.

나의 여행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지만 행복한 길임을 의심치 않는다.

운항 시스템 공학부 98 유해리

【영화로 ♀를 말한다】

제 2호

서울 여성 영화제

97

년 처음 여성영화에 관한 목소리를 높였던 제 1회 서울 여성 영화제가 2년만에 약 조건을 무릅쓰고 다시 제 2회 서울 여성 영화제로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개최되었다.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기치아래 열린 이번 영화제는 중국 5세대 여감독 리 사오홍의 <행복의 거리>를 개막작으로 시작하여 한국여성들의 단편영화까지 각국 여성들이 일구어낸 성과물들을 집약한 20여편의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1회때 보다도 더 나은 상영작들과 해외 유명 여성영화제와의 교류를 트는 성과도 이루었다.

영화제의 일환인 단편 영화와 비디오 경연에서는 정재은 감독의 <도형업기>가 최우수상을 그리고 장희선 감독의 <고추말리기>가 이경희 감독의 <있/다/없/다>가 우수상을 차지 하였고, <고추말리기>는 관객상까지 손에 쥐었다. 그리고 상영작 가운데 가장 큰 인기를 끈 작품으로는 <팝의 여전사>와 <조디 포스터>로 개막작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여성 영화제는 1회때보다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상영작 선정도 진일보하였다는 평가와 눈길을 확 끌만한 유명감독의 작품보다는 케미니즘의 화두를 진지하게 탐색한 작품수가 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안적인 새작을 지닌 상영작은 적어 영화제의 정체성에 관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숙제도 남긴 영화제였다.

영어과 97 이민영

【작품소개】



있/다/없/다

<고추말리기> 장희선 감독

이번 영화제에서 우수상과 관객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 해마다 초가을에 아파트 옥상 한 구석에서 연애 행사로 치르는 고추말리기. 이 행사를 통과하는 각기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70대 할머니와 50대 어머니 그리고 30대 딸, 2명의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

<있/다/없/다> 이경희 감독

아파트에서 사는 30대 여성들의 이야기가 만밀하게 짜인 일상의 흐름 속에 가장 잔존한 형태로 펼쳐진다.

제목처럼 <있/다/없/다>는 엄마의 아기가 하는 일종의 포포/다 (For/Da)놀이, 즉 엄마의 얼굴을 종이로 가리면 있다가 되고 공이를 치우면 있다가 되는 놀이를 통해 사회 정체성에 대한 주부들의 불안을 다룬 작품.

<행복의 거리> 리 사오홍 감독

극심한 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중국 가정의 모습이 불안한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 영화. 공성 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신자본 계급이 돈을 축적하면서 사회주의의 허부구조가 서서히 무너져 가는 모습을 슬프게 그리고 있다.

<팝의 여전사> 프리티바 파마 감독

90년대 활동하는 여성 아티스트들은 현대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영화. 마돈나와 에니 디프렌코 등이 창조해낸 도발적인 여성주의에 대해 네그레운 시선을 지니고 있는 프리티바 감독은 그들의 공연과 자넬리스트들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 영웅에 관한 논쟁을 확장시킨다. 또한 스파이스 걸즈의 스타일을 검토하면서 여성주의의 상업화를 비판하기도 한다.

[Herstory창간호를 맞이하여]

Herstory 창간호를 맞이하여

어느새 한 학기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분주했는지, 무엇을 그리도 해 보고 싶었는지, 정말 어느새입니다.

목소리나게 총여학생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로 했지만 한 학기가 다 가는 지금 되돌아보면 그저 분주하기만 했지 목소리가 나올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지난 날에 대한 반성과 앞날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일천 여학우님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아직은 여성이라는 자리보다는 학생이라는 자리가 더 어울려 여성의 위치를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아니 아직까지 이 땅에서 여성이라는 자리가 너무나 힘들기에 여성이 되기를 거부하며 "나보고 여성이라고 부르지마! 난 인간일 뿐이야."라며 마냥 속 편한 소리를 되내입니다. 여성의 아픔이 그저 스쳐 지나가기를, 나의 아픔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몇 달이지만 총여학생회의 회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보아왔습니다. 단순히 여성이기에 한평생 일해왔던 직장에서 쫓겨나 여기저기 직장을 구하시다 끝내 가정으로 돌아와 "애들아, 난 정말 쓸모 없는 사람인가보다."라고 울먹이는 실직여성가장.

남자동기보다 적은 액수를 받지만 언제 쫓겨날지 이렇다 불평 한마디 내지 않고 살았건만 끝내 병퇴요구에 못 이겨 직장에서 쫓겨나 시간제 사원으로 다시 입사하여 전 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분통, 취미를 살리려 동아리에 들었지만 "못생긴 여자 후배"라는 조롱을 받고 친구들에게 울분을 토하는 우리 친구.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학생으로 여성이라는 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머니, 언니, 친구들의 아픔에는 결코 자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겪는 고통 중에는 분명 여성이기에 생기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또한 나 자신을 위해, 연애했던 졸업하여 여성으로 인식되는 그 날! 불평등으로 좌절하지 않기 위해 함께 합시다.

공존예감 16대 총여학생회 회장 김김 미라



[한가족 결연사업]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총학생회와 함께 "한가족 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의 종이 접기 및 노란 손수건 달기"를 했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결연 자원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적도제 행사]

5월 13일에서 14일까지 적도제에서는 "반여성적인 호주제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서명 운동"과 함께 "양심수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호주제의 부당성과 국가 보안법의 악법성을 학우들에게 알렸습니다.

[여성 실업 대책본부 체육대회]

5월 30일 본교 체육관에서 부산 내 실직 여성 가장과 여성 관련 시민 단체 및 여대생들이 모여 함께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여학우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월은 여학우 복지의 달]

피부에 와 달는 여학우 복지와 관련한 여러가지 시설물뿐만 아니라 학내 성폭력 학칙 제정까지 심도 있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여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국제대 04분반 99 백이 은정



[메이데이 문화제]

4월 30일에서 5월 5일에 걸쳐 진행되었던 May-Day절야제 및 문화제에 참석하여 109년 동안 줄기차게 이어오는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May-day문화제 동안에는 부산 이외의 울산 경남 지방 대학에서도 많은 참여를 하여 대학생들의 연대를 다지는 마당이었다. 특히 일본의 무려 무장에 대한 의문과 반대를 제기하며 민속춤과 노래로 일본 곳곳을 돌아다니며 알려내는 일본 공연과 권토의 공연은 역사와 공간을 뛰어넘어 청년들이 노동자가 하나임을 느끼게 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짧은 광고

1. 총여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여성 문제 연구를 위해 **여성 문제 연구회**를 창설합니다. 이에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여성학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연구하고픈 여학우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여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함께 일할 총여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폐기가 넘치는 여학우님들, 언제나 문이 활짝 열린 총여, 마음이 따뜻한 총여의 문을 지금 당장 박차고 들어와 주세요